허 능택 그림

화살

1960년 9월 하반호 (134)

—아오지 탄광 천리마 작업반에서—

기자—어떻게 해서 그런 기적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었는지요.
로동자—바로 여기에서 혁명 사상을 본받았기 때문이지요

탄광 구급소에서

—이 약품들이 왜 효력을 못 보게 됐다고 그래요?
—로동 사고가 근절되여 약을 써 보지 못하니 말이지

박 아바이의 친근한 벗

홍 종호 그림

불'꽃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첫 발기자들인 강선 제강소 진 응원 작업반원들을 비롯한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항일 빨찌산들의 고상한 혁명 사상을 본받아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송 용남 그림

오늘의 심청이

홍 종호 그림

심청—모두들 공량미 300 석은 무엇으로 바쳤나요?
퇴원 환자 그건 예'날 이야기지요
우리는 무료로 눈을 뜨게 되였지요

희한한 다툼

강계 방직 기계 공장 최 문희 천리마 작업반 검사원은 작업반원에게 화를 냈다.

《내가 검사할 때 흠집이 없었는데 뭘 자꾸 그러우, 난 동무의 제품에서 불만족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소. 그런데 동무는 합격품으로 통과된 걸 흠이 있다고 자꾸…》

《그러나 검사원 동무는 만족하지만 난 만족되지 않는단 말요, 좀 더 수정해서 보내야지 그대론…》

《글쎄 검사원이 측정을 다 해 보고 합격이라는데 왜 그러오. 검사원이 누구요?》

《검사원은 동무 뿐 아니요! 만드는 사람이 더 엄격한 검사원이 돼야 한단 말요》

《책임을 내가 질테니 가만 있소》

《책임은 누가 지던 난 내 량심으론 그런 걸 내 보내지 못하겠소》

《검사원이 통과시킨 걸 가지구 그러니 동무에게 검사원이 무슨 필요가 있소. 자체로 다 하우》

이것을 보고 있던 직장장은 흡족해서

《허, 최 문희 작업반에선 검사원이 생산자의 제품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검사원이 합격시킨 제품을 검사하는 판이니 검사원 동무, 래일부터 이 작업반의 제품은 검사 안해도 좋소》

× ×

최 문희 작업반장이 얼굴을 붉혀 가지고 정량원과 말 다툼을 하고 있었다.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아웅다웅 싸우는가)

직장장은 급히 다가 갔다.

《그래 우리가 하루에 요것 밖에 못한단 말요?》 작업반장이 하는 말이였다.

《난 과학적으로 측정했소.》 정량원의 말이다.

《여보 어제가 옛날이란 걸 모르오? 우린 매일 창의 고안을 하고 있소. 1분을 아끼려고 뛰여 다니오》

《그러나 정량이 그거면 적진 않소》

《그럼 우리가 하루에 고것만 하란 말요?》

《다른 데도 정량이 그런데 동무네만 정량

을 더 높여 달란 말요, 그 정량을 그대로 두고 150%, 200% 하면 되지 않소. 그러면 % 수도 올라 가고 수입도 많아질텐데 왜 그러오》

《그러면 % 수는 올릴 수 있지만 정량을 많이 거는 것보다 아무래도 덜 생산하게 된단 말이요. 우리는 % 수나 보수는 못 올라가도 국가에 더 많은 기계를 주면 그만이요》

《그래 한 5%쯤 더 높이면 되겠소?》

《안되오. 적어도 20% 이상 높여 주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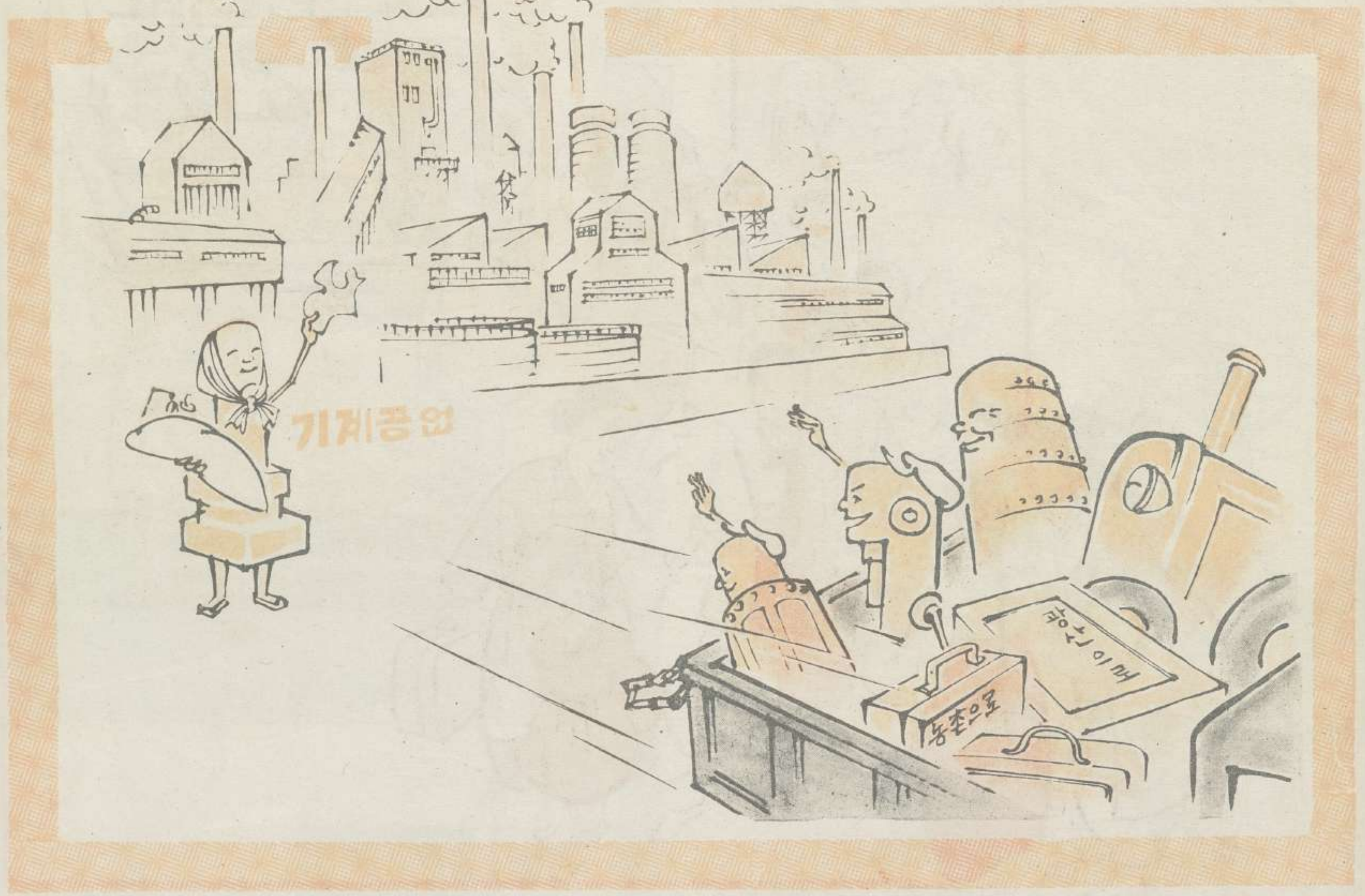
《엊그제 측정하구 제정한 정량이 적어졌다니 난 동무네 정량을 제정해 줄 수가 없소. 또 동무네게는 정량이 소용 없소. 정량이 없어도 정량보다 더 하니까.》

다툼을 듣고 있던 직장장은 만족하게 웃으며

《난 싸움을 한다고 욕을 하려 왔더니 싸움을 한데 대해서 칭찬을 해야겠군. 이런 다툼은 암만이구 하시오. 말리지 않겠소. 그러나 정량원 동무와의 싸움은 이것이 마지막이요. 동무네 작업반에선 작업 정량을 정량원이 제정하지 않고 작업반원들 자신이 제정해서 일하도록 하시오. 완전히 공산주의적으로 말이요》.

리 운봉

어머니의 환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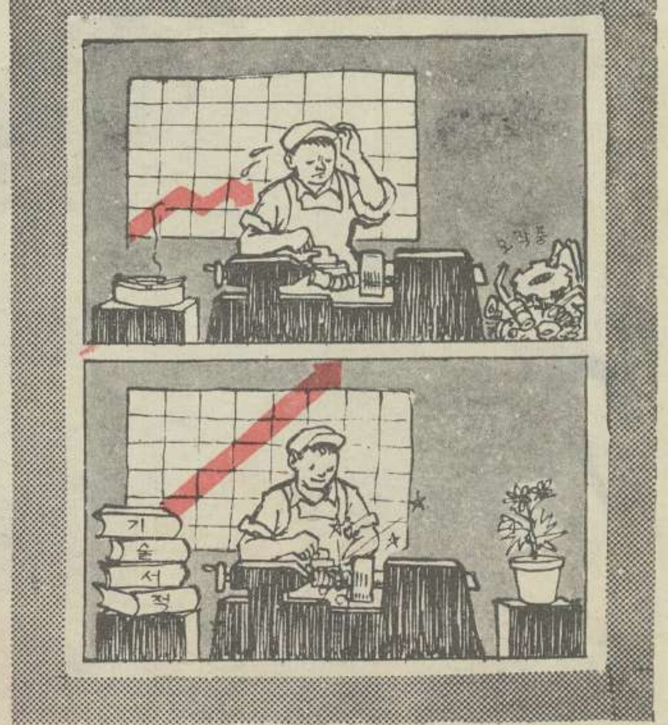
최 영근 그림

—안녕히 게세요 어머니
—오냐 가서 일을 잘 해라

홍 종호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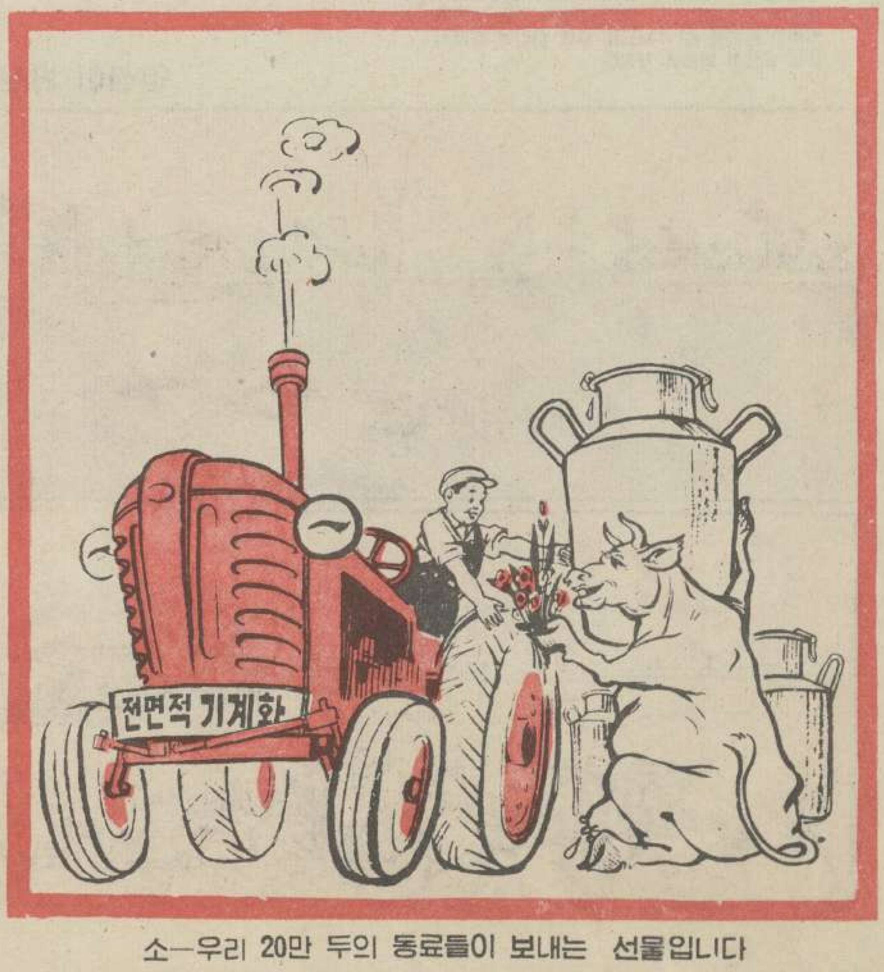
송 시엽 그림

달라 졌다



김 동철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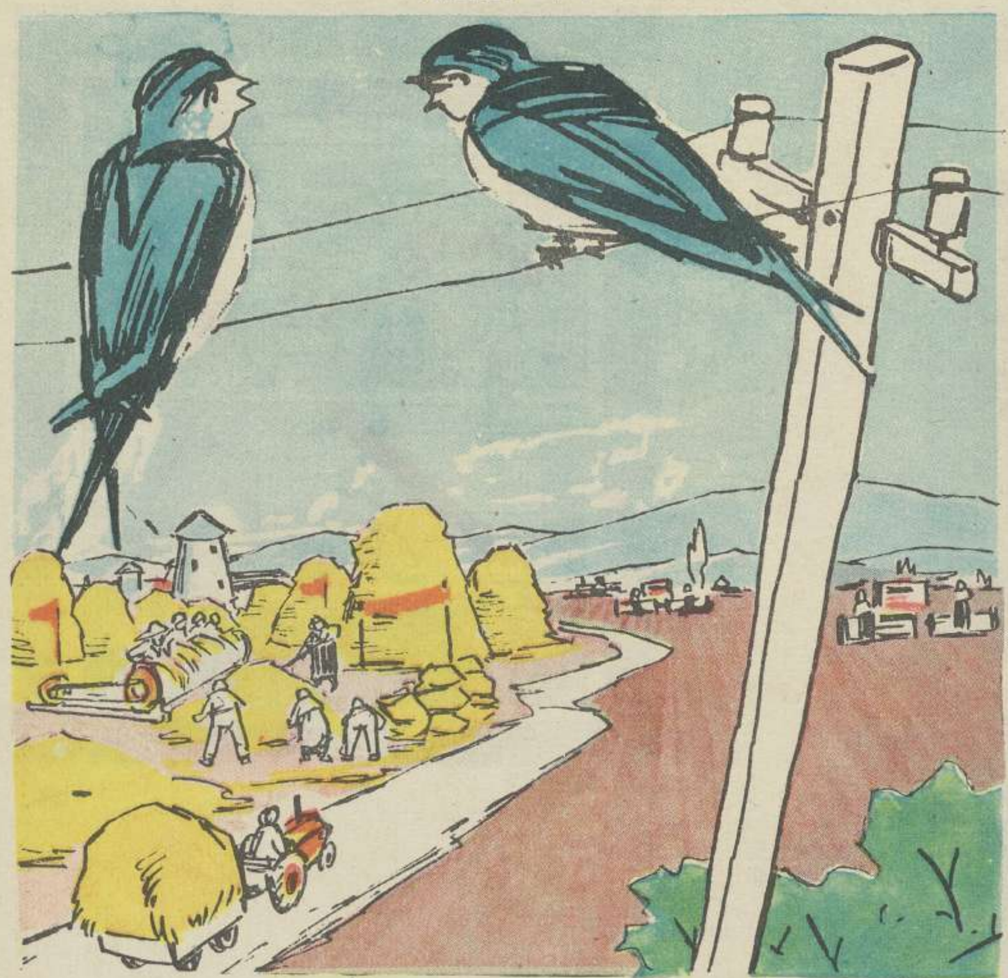
소의 선물



소—우리 20만 두의 동료들이 보내는 선물입니다

김 성엽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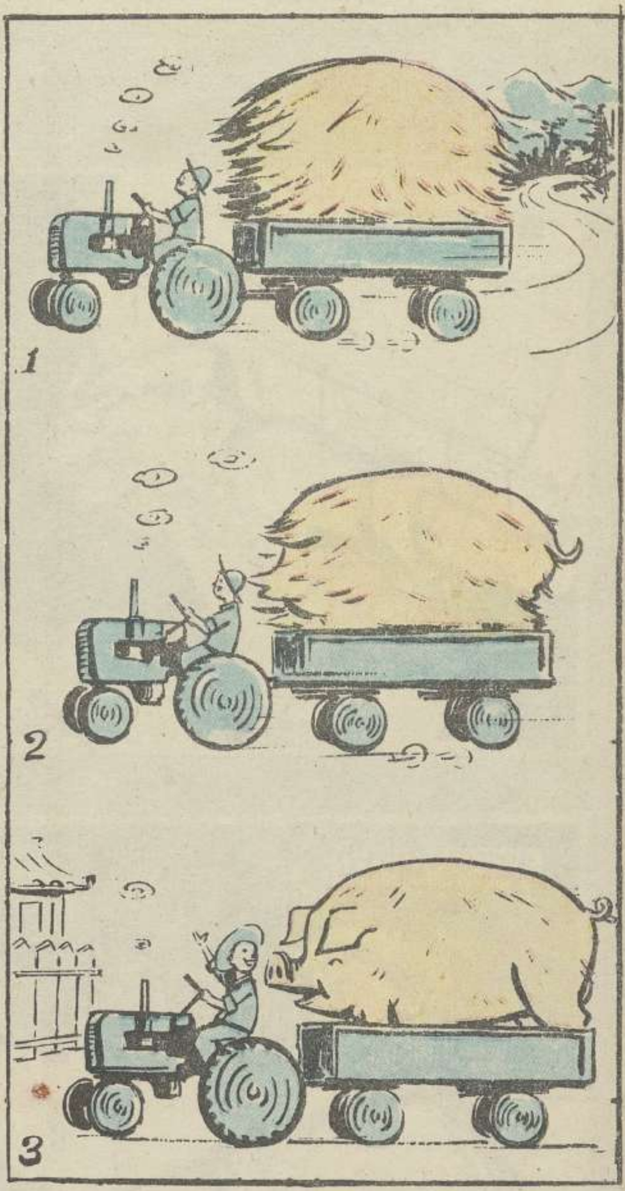
제비의 착각



송 시엽 그림

—파종이 시작되였으니 강남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겠구나
—너는 탈곡하는 것이 보이지 않니 여기서는 2 모작을 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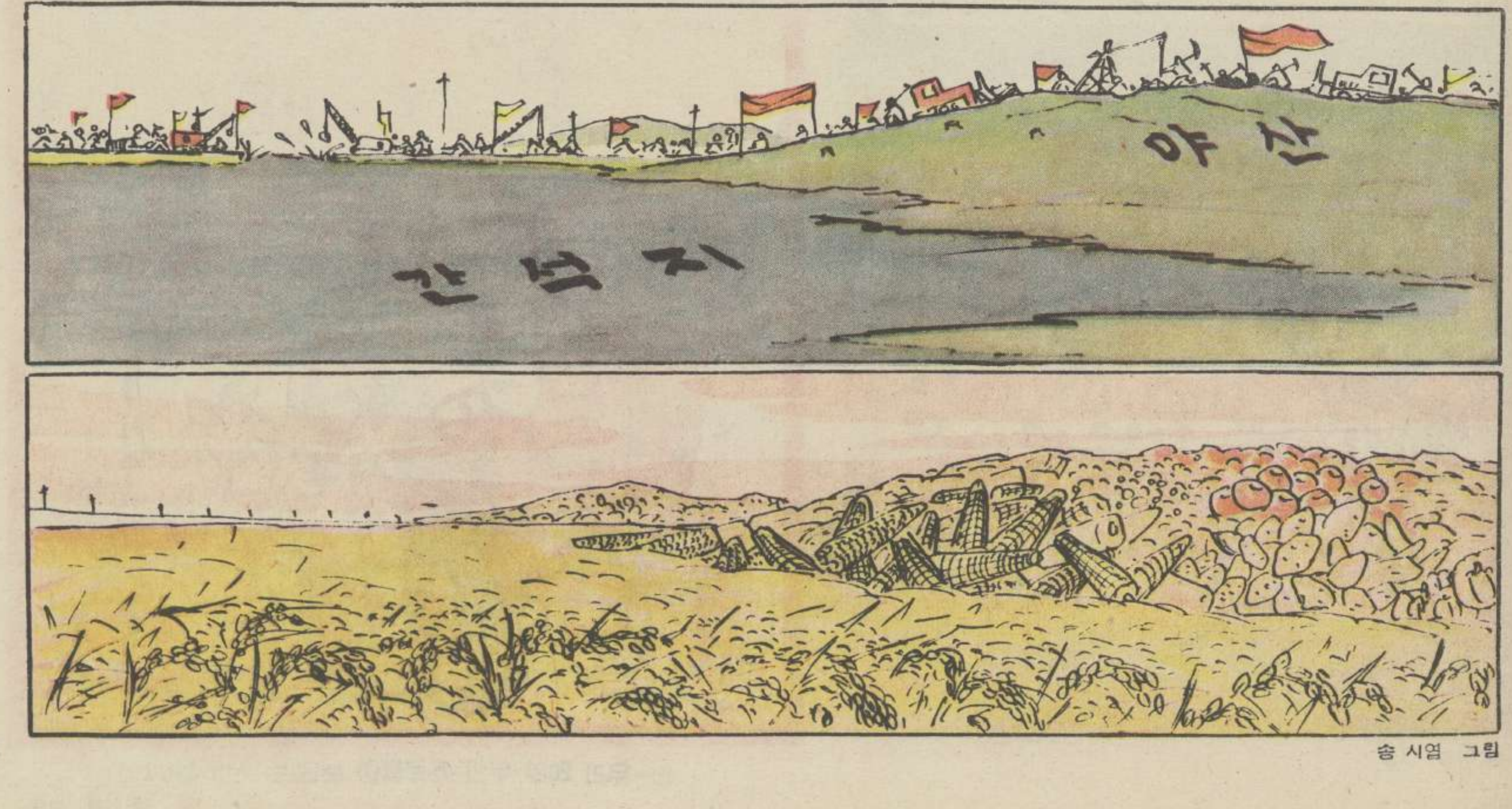
건초 더미는 고기 더미



안 창수 그림

야산을 일구어 농경지로 전환하며 간석지를 막고 논을 푸는 것과 같은 자연 개조 사업을 통하여 절대 경지 면적을 확장하는 것은 알곡을 비롯한 농작물 총 수확고를 증대 시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강산이 변한다



송 시엽 그림

고개 방아

최 인필

기술 전습 상학이 시작됐다네.
교원은 강의에 열중하고
동무들은 새 지식 또박또박
수첩에 기록하며 열중인데…

박 동무만은 늘어진 어깨에
선하품 크게 절치더니
고개 방아 찧는구나!
군침도 떨궈 가며…

예로부터 우리 나라의 방아,
아름다운 민요로 전해 왔건만
박 동무의 고개 방아만은
그 무슨 타령으로 불렀으면 좋으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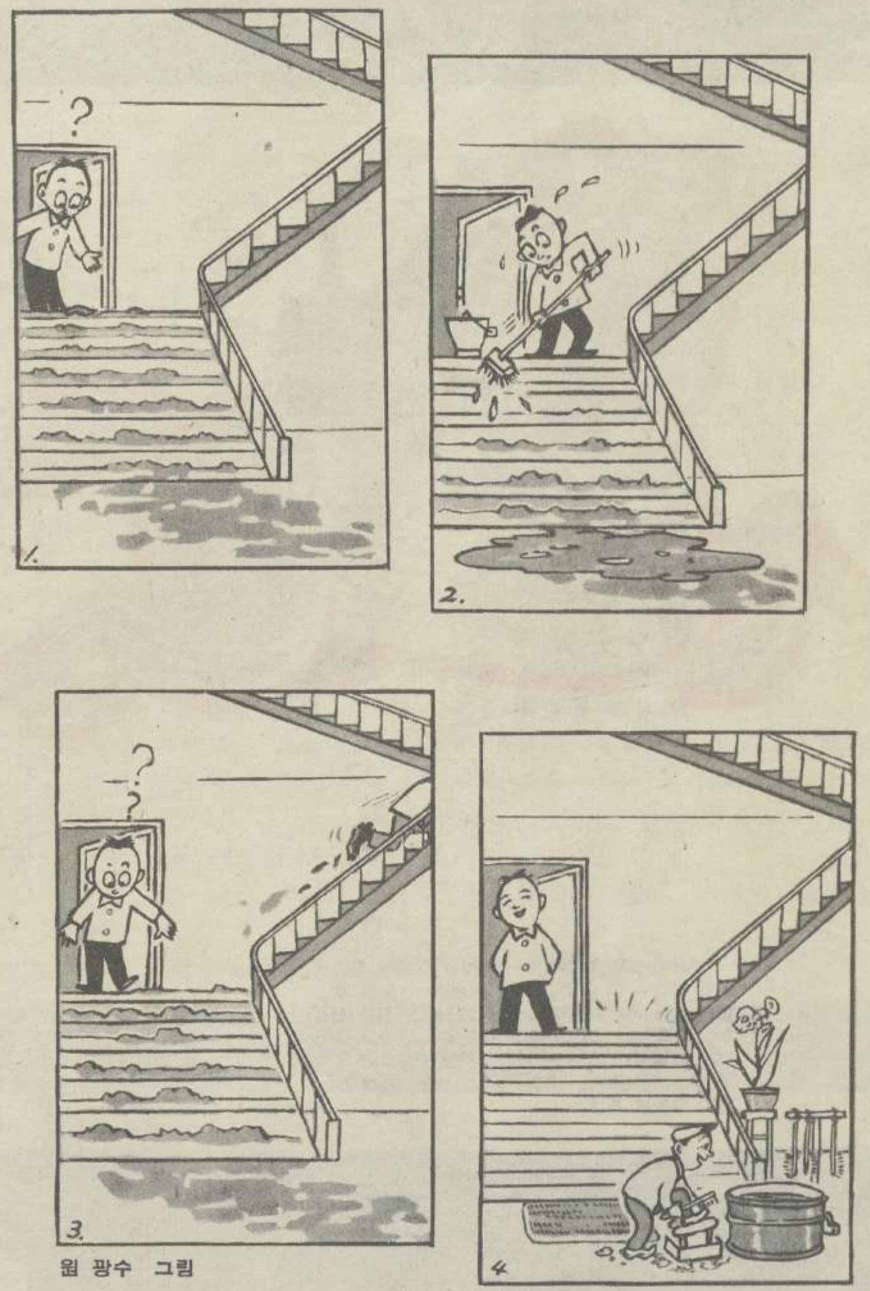
—박 동무! 기중기의 성능을…
뜻 밖에 교원의 질문이 울리자
고개 방아 덜컥 멎고
군중의 웃음이 쏟아진다.
마치 닭알 낟가리가 허물어지듯…

사방을 휘둘으며 일어서는 박 동무,
—예? 어제도 기술 학습에 참가했어요.
벙어리 딴 대답 줴치니
다시 쏟아진다. 와르르 웃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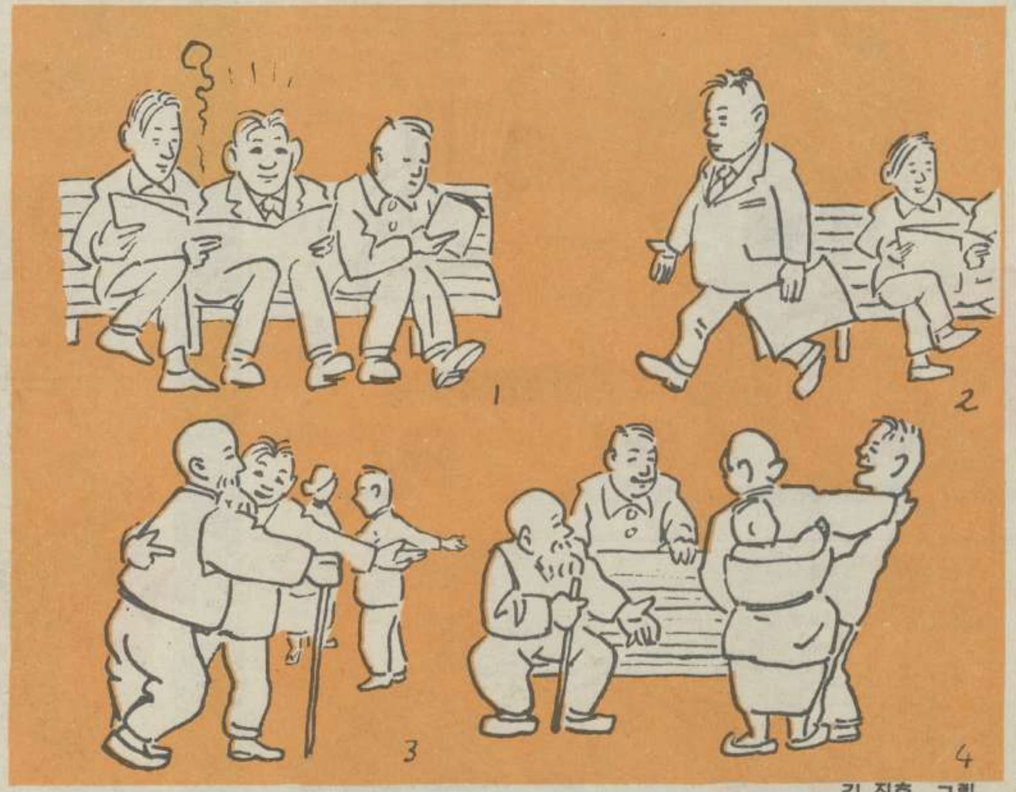
친구여! 〈고개 방아 기술 전습〉,
이런 학습이야 백날 한들 무엇하랴
출석부 공란이나 메꾸자고
그런 때는 예'날이다.

다시 한번 살펴 보라
지금은 천리마 시대—
기술 혁명의 봉화가 세차게 타오르거니
고개 방아 찧는 그 시각에도
우리는 분초를 아끼며 기술을 배운다네.

(필자는 강선 제강소 로동자)



원 광수 그림



김 진호 그림

남북 조선의 판이한 두 길

—외국 사람들이 본 해방 후 조선—

《전설에 있는 천리마가… 현실의 조선을 뛰여 돌고 있다… 이 천리마를 탄 기세의 생산의 매진은 날로 대중의 생활의 내용을 변경시키고 있다. 어제'날의 부족이 오늘 충족되고 오늘의 희망이 래일 실현되는 날마다 밤마다의 향상이 똑똑히 눈에 보인다》 (일본의 이름 있는 사회 평론가 데라오 고로)

원 광수 그림

그놈이 그놈

유 진웅

이번 연회가 특색을 띠고 있는 점은 비용은 장 면이 부담하고 (실은 그것도 제 돈이 아니다) 명색은 맥코노이가 한턱 내는 것으로 알려진데 있다.

〈대사관〉 응접실 한켠 구석에 비실비실 모여든 《장관》들은 무한한 《영광》에 휩싸여 숨도 크게 못쉰다. 이제 《주한 미 경제 협조처 처장》 모이어만 나타나면 곧 연회가 벌어질 판이다 !

그런데 맥코노이가 이러쿵저러쿵 《장관》들에게 《시정 방침》을 따지고 볶고 하는데 그야말로 먹지 못하는 제사에 절부터 하라는 식으로 진땀이 날 노릇이다.

《당신의 수완 매우 매우 부족합네다. 우선 첫째로 유 엔 감시 하의 남북 총 선거, 둘째로 동북 아세아 동맹 결성— 자꾸 자꾸 떠들어야 합네다.》

맥코노이가 《외무부 장관》에게 재삼 강조하는 말이다.

《명심하겠소이다. 아무렴 미국의 빵으로 잔뼈가 굵은 제가 잠신들 그것을 잊으오리까. 자나 깨나 〈멸공 멸공〉하고 부르짖겠습니다.》

《외무부 장관》은 한숨을 내쉬였다.

다음 《대사》의 호출을 당한 자는 《국방 장관》이다.

《오, 말뚝 장관, 당신 정신 차리시오.》

《네? 말뚝 장관이라니요?》

《국방부 장관》은 그것이 무슨 군사 술어나 아닌가 해서 벌벌 떨었다.

《당신네 국군 전량 말뚝이란 말입네다. 우리 미국, 국군 때문에 개코망신 한두 번만 당하지 않았삽네다.》

《죄송합니다. 목숨 걸고 일선에 나서겠습니다.》

《우선 폐쇄 정책을 강화하시오.》

《그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아이구 이런 돌대가리… 국군의 눈과 귀에 철막진을 치란 말입니다》.

《네네, 그렇지 않아두 방금 일체 외출과 휴가 면회를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코가 문제입니다》

《코? 코에서 뭐가 문젭네까?》

《글쎄 〈어디서 파업이요?〉 〈어디서 시위요?〉하고 냄새만 맡는단 말입니다.》

《거 위험합네다. 단단히 감시하시오.》

심문을 끝낸 《국방부 장관》은 남을 슬쩍 걸고 넘어졌다.

《좀 말씀 드리기가 뭣하지만 아 글쎄 장 면 식당이란 락서가 거리에 나 붙어 있거든요.》

《뭐이? 어디에 그 따위 락서가 나붙었어, 앙?》

장 면은 대번에 돼지 멱 따는 소리를 질렀다.

《저 시내 공동 변소 출입문에 말입니다. 그리구 그 옆에다가는 변소'간에 주둥이를 틀어 박구 있는 꿀돼지를 그려 놓았는데 그게 바로 맥코노이 대사가 아니겠습니까?》

《뭐랍니까? 내가 꿀 먹는 거? 나 어제 꿀 먹었습네다. 일등 맛입네다…》

《그런게 아니라…》

이때 만일 장 면이가 눈만 흘기지 않았던들 곰처럼 미욱한 《국방 장관》은 영락 없이 꿀돼지 설명을 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때 《재무부 장관》이 냉큼 뛰여 들어 오더니

《각하님, 제가 각하를 위해서…》

하며 처녀의 라체상을 만든 금붙이를 맥코노이에게 갖다 바쳤다.

《오케이, 매우 고맙습네다.》

《각하의 분부대로 저는 백성놈들에게서 자꾸 긁어 들일 작정입니다. 그러면서 내핍생활, 50년 후의 복지 사회— 이런 그럴듯한 보자기로…》

《당신의 시정 방침 아주 그럴듯 합네다. 그러나 하느님을 방패 삼는 것 잊지 마시오. 앞으로 50년만 참으면 천국 온다고 자꾸자꾸 선전하시오. 알았습네까?》

《념려 마십쇼. 아주 그럴듯하게 속여 넘구겠습니다. 그리구 뒤'처리는 슬슬 뭉개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맥코노이가 밖에 잠시 나갔을 때 상 우에 놓인 금붙이를 본 《문교부 장관》은 깜짝 놀랬다. 그는 다짜고짜로 《《재무부 장관》의 따귀를 후려 갈겼다.

《이놈 리 승만이 생일 때 선사했다던 금붙이가 네놈의 수중에 있었구나!》

그러자 다른 《장관》들도 돈을 낸 일이 있는지라 저마다 분풀이를 하는 통에 연회상이 뒤집히고 술병, 그릇이 날아 나며 쉥강 뎅강 창문을 박살해 놓았다.

《재무부 장관》은 팔뚝으로 늙은 《장관》들을 뿌리치고 문을 냅다 걷어차며 뺑소니쳤다. 금붙이는 어디로 달아 났는지 간 곳이 없다.

그때 맥코노이가 들어 오더니 호통을 친다.

《내 금붙이 어디 갔느냐!!》

두 현실

《조선보다 앞섰다고 자만하는 어떠한 제국주의 국가의 농촌에서도 조선 농민의 생활보다 낫지 못하다. 조선의 농촌은 이 수년래 그만큼 급속히 비약한 것이다》 (아랍 련합 공화국의 신문 〈알바단〉 주필 아브둘 라트만 아브꼬스)

벽 인균 그림

… 조선은 오랜 세기를 두고 자랐더라
그는 하나, 오랜 옛날부터 하나였더라
그렇건만 후에 와서
《북》이니 《남》이니 하는 자가 있었더라
이때로부터 북쪽엔 꽃밭
남쪽엔 녹쓿은 칼

북쪽엔 펼쳐논 희
남쪽엔 온통 금령(禁令)
북쪽엔 끝 없는 기쁨
남쪽엔 끊일 없는 근심

(시 《조선의 노래》 작가
베네주엘라 시인 칼로스 마우구스트리온)

박 승히 그림

일본의 조선 문제 평론가 후지시마 우다이는 남조선을 《대환 민국》(大患民國) 이라고 지적하면서 《600만 명 이상이 디스토마 환자인데 약품은 겨우 6천 명 분이 있을 뿐》이고 《폐결핵 환자》는 210만 명, 문둥이는 20만 명 이상, 류행성 뇌염 환자는 100만 명 이상… 이 세상에서는 상상하기조차 끔찍스러운 수'자》 라고 병든 남조선을 소개하였다.

벽 인균 그림

《해방 후 미국의 지배 하에 들어 간 남조선은 경제적으로는 미국 잉여 상품의 판매 시장으로 되여 버렸으며》(기깐시쯔신—일본) 남조선 경제는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 경제의 불가피성으로 하여 극심한 참상》 (챨스 에드먼슨—국제 협조처의 이전 한국 공보 고문)에 빠져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

벽 인균 그림

몽둥이 세상

이전 《유엔 한국 재건단》의 한 계획관으로 남조선에 와 있던 카나다의 젠켄스 같은 자까지도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식민지 통치는 《야수 같은 경찰 독재》이며 남조선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나쁜 정부의 하나》 라고 지적하였고 미상원 외교위원회가 발표한 악명 높은 이른바 《콘론보고》까지도 《한국은 그의 짧은 력사의 전 기간에 걸쳐 정치적 폭력, 흉악한 탄압 행위 및 몇몇 경찰 국가 전술의 악점을 남기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안 광수 그림

빈 공'자 공약

신 흥순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고 하니 장 면이의 졸개가 장 면이를 두면해 나서다가 녹아나는 장면이다.

《왜들 모여 또 쑥떡 공론들이요? 엉? 아 그래 장 면 내각이 어쨌단 말요?》

《민주당》 지부장 양가란 자는 동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살그머니 와서 엿듣다가 무슨 요정이나 낼 듯이 울러멘다.

《그럼 장 면이가 국무 총리로 들어 앉어 해 놓은 게 뭐요? 리 승만 때 해 먹던 악질 놈들이나 비호허구 그리구 부정 축재자들한테서 뢰물이나 받아 먹구》 박 로인이 격분해 하는 말에 열엣 사람의 등이 단다.

《지난 번 선거 때, 장 면 자신이 제 입으로 헌 말이 있지 않소? 선거 공약인지 개뿔인지?》

《그건 빈 공'자 공약이야! 실천되는 게 어딘 하나나 있나? 자 수도물은 여전히 안 나오지, 전기두 안 오지, 물'가는 날마다 올라만 가는데 게다가 관영 료금은 덜컥 올려 놓구 날마다 비싼 세금만 내라구 닥달질이니 아니 이게 그래 무슨놈의 정치야?》

《아니 왜덜 이러시우?》

양가는 박 로인의 앞으로 다가 앉으며 다소 누그러진 소리로 변명 삼아 말한다.

《글쎄 생각들을 좀 해 보시우, 삼 같이 헝클어진 국정을 어떻게 하루 이틀에 바로 잡는단 말이요? 차츰차츰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가야지,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멘다는 말이 있잖소?》

《여보 당신은 말할 권리가 없어! 협잡 선거에 공을 세워서 지부장 감투를 하나 땄으면 그만이지 뭘 더 먹겠다구 중뿔나게 나서서 이래?》

군중 속에서 누가 내 쏘는 말이다.

《여보 지부장을 어떻게 알구하는 소리요? 호참! 이제부터라도 선거 공약대로 하면 되잖소?》

《드레박 줄 보면 우물의 깊이를 안다구 허는 수작이 벌써 틀려 먹었어! 장 면이가 내 놨다는 소위 시정 방침이란 것부터가 누구 말마따나 모래알 씹는 기분이란 말야! 말로만 어름어름 해 버리려구? 흐 안되지, 15년 간 우리두 가짜 진짜를 분간할 줄 아는 재간은 늘었어!》

《장 면이가 글쎄 〈복지 사회를 건설하겠다〉구 해 놓군 얼마나 걸리겠느냐고 물으니까 〈한 50 년은 더 걸려야 된다〉나요?》

《50년? 흐! 장 면인 땅 속에 들어 가구 증손자 때? 어림 없는 소리》

《그뿐인가요? 요즘은 또 4억 2천만 환이나 들여서 뭐 〈국무총리〉 관저를 짓는다나요?》

《뭐 4억 2천 만 환? 잘헌다! 아니 인민의 고혈을 짜내 가지구 헌다는 게 그 짓이야?》

《그리구 장관이란 작자들은 또 뭐라구 그러는지 아십니까? 재무부 장관이란 건 〈국가 재정 원천이 없어 공약대론 못하겠다〉느니 상공부 장관은 또 〈전력난 때문에 중소 기업은 육성하기 곤난하다〉느니 교통부 장관이란 건 〈우린 사업 관청이니까 철도 운임이나 올려서 수지를 맞춰야겠다〉느니 그리구 또 법무부 장관이란 작자는 〈부정 축재자 처벌 문제를 제대로 취급허자면 한국 경제가 파탄될 지경이니까 그것두 곤난하다〉느니 전수 이런 판에 공약이 다 뭡니까?》

《하여튼 신통히도 끌고루 모였군! 우리네가 그런 꼴 보자구 4월 혁명에 피를 흘렸나? 이대루 거냥 둘 순 없어! 중앙청에 가서 항의를 해야지》

《옳습니다!》 군중들이 호응한다.

《정치란 정'자두 모르는 숭맥들이 정부에 들어 앉아서… 흐,장 면이만 해두 왜정 때 친일파루…》

《아니 뭐요? 친일파?》 양가가 나선다.

《〈황국 국민 정신 총 동원 조선 련맹 참사〉〈대동아 전쟁 대책 협의회 참사〉〈조선인학도 경성부 보도 련맹 리사〉

노릇을 해 먹으면서 다마오까라구 창씨까지 헌 놈이야!》

《아니 왜정 때 창씨 안헌 사람이 누구요?》

《게다가 눈꼴 사납게스리 하오리, 하까마(일본옷)에 게다짝만 끌고 다니면서 〈황국신민〉이니 〈내선 일체〉니 떠벌렸구 대동아 전쟁 땐 학생들을 학도병으루 내 몰면서 텐노헤이까(천황페하)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악을 쓰던 게 지금은 또 미국놈 간에 붙어서…》

《여보시우 일국의 고관들을 모욕헌 건 죄가 아닌 줄 아시우? 맛을 봐야 알겠소?》

《뭐이? 이놈아 네놈부터 맛을 뵈여야겠다.》

박 로인이 양가의 따귀를 때리자 뒤이어 군중들이 달라 붙어 죄겨댄다.

사람 무데기 속에서 〈아이쿠〉 소리만 맥없이 들려 왔다.

얼마후 군중들의 시위 대렬은 장 면이가 있는 중앙청으로 향하며 이렇게 웨쳤다.

《리 승만이 때나 지금이나 똑 같다! 물러가라!》

그 상전에 그 졸도

박 승히 그림

미제—세상 사람이 다 장 면이를 추잡하다고 욕하지만 나는 전혀 모르겠어…!

장 면의 《시정 방침》

장 면 괴뢰 도당은 조국 통일 문제에서 《유엔 감시 하의 남북 총선거》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나라의 자주성을 말살하고 민족의 운명을 외래 제국주의자들에게 내맡기자는 것이다.

미제의 조정 밑에 괴뢰 정권에 들어 앉은 장 면 일당이 지껄이고 있는 《시정 방침》의 내용을 보면 그것은 철두 철미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차 있으며 그것은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반역적 정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장 면 《내각》은 부정 축재자들을 처단한다고 하면서도 《가혹하지 않게》 《경제 파탄을 가져 오지 않는 한도》라는 말로 어물어물해 버리고 세상 사람을 속이려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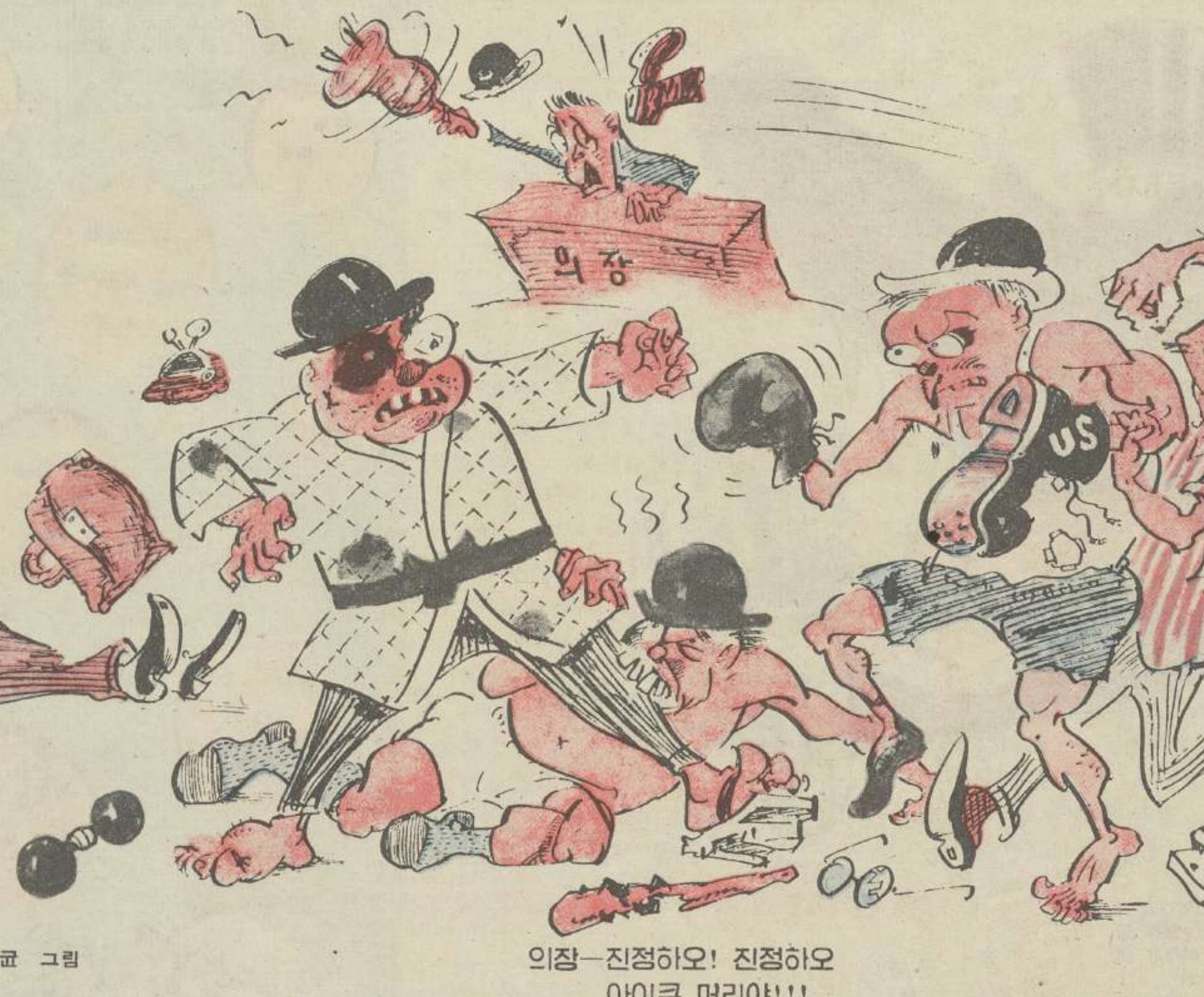
—배에 울리지 않도록 기분 좋게 해주게!

최근의 남조선 농촌 풍경

인'기 없는 흥행물

박 승히 그림

망나니 《국회》



백 인규 그림

의장—진정하오! 진정하오
아이쿠 머리야!!!

미제의 절구'공이

원 광수 그림

하늘 아래 둘도 없는 망나니 《국회》

조 병조

《여러 분! 여러 분들은 어찌하여 나를 변절자라 하오》

오래'동안 문을 닫았던 《국회 본회의》가 열리던 날 장 면 괴뢰 정부의 《교통부 장관》 정 가는 누구보다도 먼저 단상에 올라 가서 《취임 인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아니, 저 량반이 대체 저게 무슨 인사야!》

《의사당》 안은 갑자기 뒤숭숭해졌다.

《글쎄 내가 구파를 배신하고 신파에 넘어 온 것은 정치가로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돈을 먹고 변절한 자〉라고 하니 참 분통한 일이요…》

정 가는 주먹으로 연단을 〈땅〉 치면서 고함을 쳤다.

《이 자식 변절했으면 가만이나 있지, 변명은 무슨 변명이냐! 저 놈을 단상에서 끌어 내려라!》

이미 《국무 총리》 자리 다툼에서 장 면이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신파한테 패배를 당하고 그렇지 않아도 분해하고 있던 《민주당》 구파 《의원》들은 일시에 주먹을 내두르면서 고함을 쳤다.

《무무엇이 어째…내가 변절자라면 너희 구파놈들은 선거를 협잡해 먹은 사기'군이며 도적놈들이다. 나는 네놈들의 죄상을 낱낱이 털어 놓을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 때 《의원》 석에서 어쩔줄을 모르던 구파 《의원》이 단상으로 뛰여 올라갔다.

《이놈아, 네놈이 신파 내각에는 절대로 가담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도 오늘에 와서는 도리여 우리 구파를 공격해?》

어느 새 구파 《의원》의 오른쪽 주먹이 정 가 의 볼따귀에 올라가 붙었다.

《이놈이 누구를 쳐!》

이 번에는 정가 의 주먹이 구파 《의원》의 면상을 찔렀다.

그리하여 두 《국회 의원》은 서로 붙잡고 육박전을 들어댔다.

이 때 《국회 의원》 석에서 한 의원이 또 단상에 뛰여 올라 갔다. 그는 서울 장안에서도 이름 난 싸움'군인 리 《의원》이였다.

그는 단상에 뛰여 올라 가자마자 정가를 넝큼 들어서 《의원》 석에 내동댕이쳤다. 《의원》석에 굴러 떨어진 정가 는 혀를 가로 물고 까물아쳤다.

이렇게 되자 《의사당》 안은 벌통을 쑤셔 놓은듯이 떠들어댔다. 신파석에서 내던진 의자가 구파들의 머리를 까부시고 땅 바닥에 내려지는가 하면 구파석에서 내던진 지팽이며 물 주전자가 또한 신파들의 면상을 치고 땅에 떨어지는 등 그야말로 《의사당》 안은 눈 뜨고 볼 수 없는 란투장으로 화하였다.

이때 사회석에서

《여러 분 이게 무슨 짓이요, 그만 싸움을 중지하고 회의를 계속합시다.》

하고 《의장》이 고래고래 고함을 쳤다.

그러나 《의사당》 안은 여전히 중절모와 문서 꾸러미가 공중을 날고 이 구석 저 구석 서로 끌어 안고 엎치락 뒤치락 딩구는 《의원》들의 무리 싸움은 좀처럼 멈춰지지 않았다.

사태가 이렇게 발전하자 싸움을 말리기에 기진 맥진한 《의장》은,

《에잇 못해 먹겠다》고 《의사봉》을 내 동댕이 치고 도망치고 말았다.

그리하여 장 면 《내각》이 조작된 후 처음으로 열린 괴뢰 국회 본 회의는 《민주당》 내 신, 구 량파 간의 개싸움으로 끝났다.

이날 방청석에서 《민주당》의 신, 구 량파 《의원》들의 패싸움을 구경하고 난 방청객은 《하여간 하늘 아래 둘도 없는 망나니 국회라니》하고 입을 쩍쩍 다시였다.

《의사장》 밖에 모인 수 많은 군중들은 《지금 백성들은 태풍 피해와 함께 민생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판에 감투 싸움만 벌리고 있는 괴뢰 국회는 차라리 해산해 버려야 한다!》하고 웨치고 있었다.

김 명섭 그림

콩고에 나타난 《평화의 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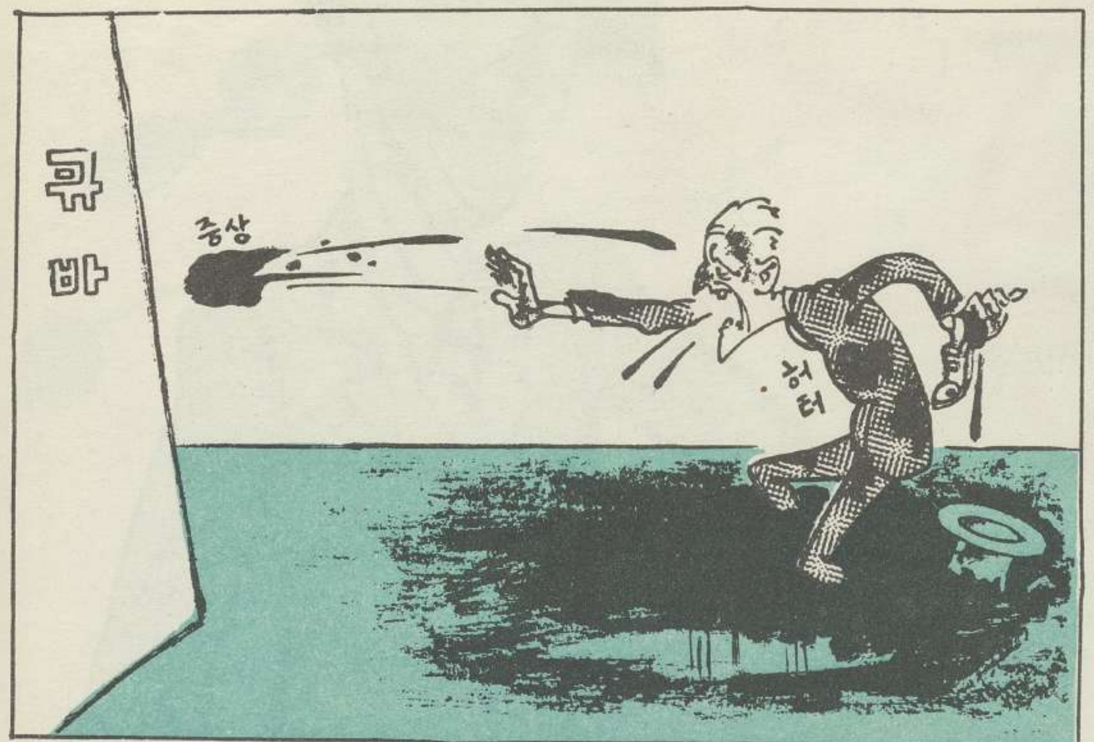
미제는 콩고에서 유엔의 기'발로 자체를 음폐하면서 콩고에서 벨기 식민주의자들을 대신하여 식민지 지배를 수립하려고 악랄한 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최 영근 그림

달에 가까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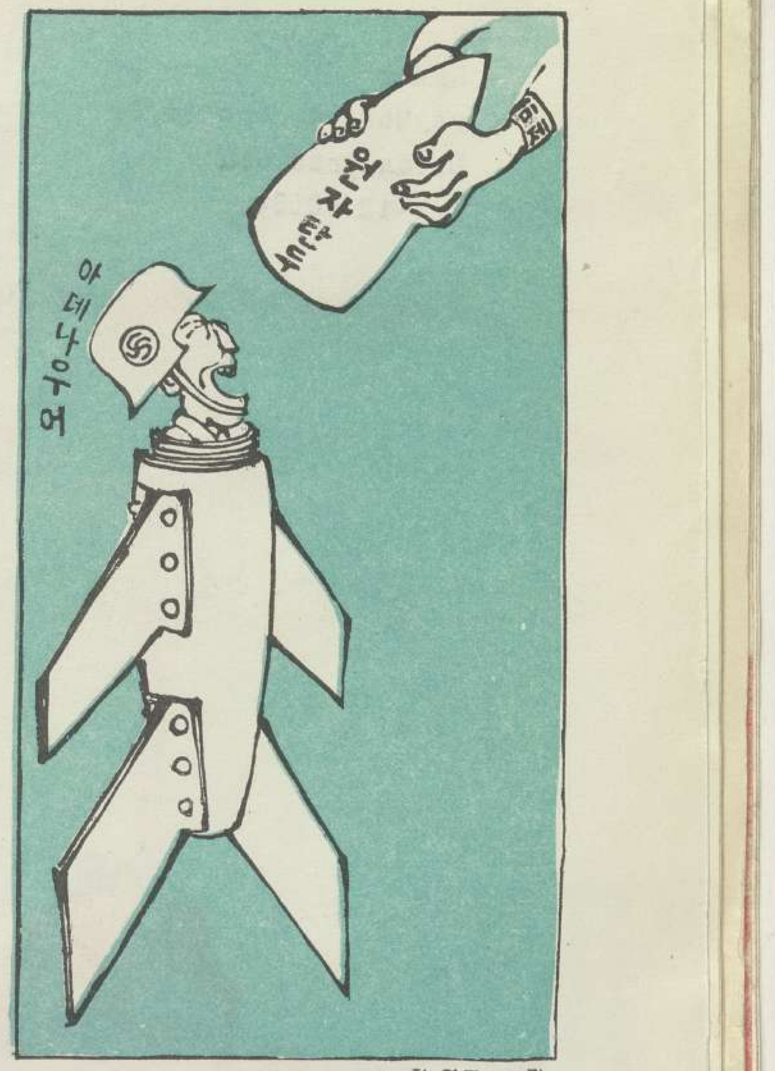
최 영근 그림

중상하는 자의 립장



최 영근 그림

자살 행위



최 영근 그림

《물초롱》과 《소방차》에 관한 이야기

로 철

지난 8월 19일 이른 새벽, 미 공군성 직속 로케트 파학 연구소로 급한 전화가 걸려 왔다.

헬로! 테일러 있소? 그게 누구라니, 당신네 그 소장인지 송장인지 하는 늙다리 말요! 테일러 박사요? 여보 박사 선생님! 대체 당신은 졸고 있소? 아니면 무슨 불평이라도 있는지요, 앙?

—아, 아니 장관 각하…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또 그 무슨 사고라도…

—사고라니? 아니, 그러면 당신은 어제'밤에 륙군성 녀석들이 인공 지구 위성을 쏘아 올렸다는 소식을 모르고 있소?

—네, 알고 있기는 한데…

—그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소식인지 당신은 알기나 하오, 앙?

네, 그것은…

그것은 우선 이 공군 장관 《각하》의 모가시가, 다음에는 《파학자》의 탈을 쓴 살인 전문가 테일러의 모가지가 댕그렁 하고 떨어질 수 있다는 말하자면 아주 불길한 소식이였다.

그 사연은 이러하다.

얼마전에 미 국가 안전 위원회 긴급 회의라는 게 소집되였었다. 여기에서는 새 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미쳐 날뛰고 있는 미제의 두목들이 모여 앉아서 아직도 대륙간 탄도 로케트는 물론이고 인공 지구 위성조차도 변변히 만들지 못하고 있는 주제에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을 정탐하는데 쓰자는 간첩용 인공 지구 위성을 시급히 제작할 문제를 토의하였는데 이때 륙군성, 해군성, 공군성의 세 장관 사이에는 아주 맹렬한 론쟁이 벌어졌었다. 장관 감투는 쓰고 있지만 원래 모두가 다 살인 무기 회사들의 대리인 아니면 주문원들인지라 저마다 제 성에서 만들겠으니 6억 딸라의 예산은 꼭 자기에게 배당해 달라는 것이였다. 으레 그렇듯이 말다툼은 주먹다짐으로 발전하게 되였는데 이 란투극은

—그 럴것 없이 누구든지 먼저 시험 발사하는 성에 맡기기로 하자.

라는 의견이 있은 후에야 막을 내렸던 것이다.

그날로 항공 장관 《각하》는 상전인 《록키드 항공 주식 회사》의 사장인 록키드 2세에게 불려 갔다.

—알겠소 장관? 어떤 일이 있더라도 6억 딸라는 공군성이, 즉 우리 회사가 차지하도록 공작하시오. 방금 아이크에게도 우리를 지지하도록 푼푼히 뢰물을 보내 줬소. 문제는 우선 먼저 위성을 발사해 놓고 보는 것이오. 성공하면 1만 5천 딸라의 상금, 실패하면 모가지, 둘 중에 하나요, 알겠소?

—알았습니다.

그런데 륙군성 녀석에게 선코를 얻어 맞았으니 항공 〈장관〉의 사정은 매우 딱하게 되였던 것이다.

—여보, 테일러 박사, 이 일을 어찌면 좋겠소?

—장관 각하! 제가 알아 본 데 의하면 륙군성에서 어제'밤 쏘았다는 《쿠레어 1—에이》 위성은 중량이 5키로 짜리로서…

—5키로 짜리라니? 그게 대체 얼마만 한 게요?

—네, 말하자면, 그… 물병만한…

—흥, 그런데?

—그것도 역시 발사 후 관례대로 2시간 30분만에 폭발되고 말았은즉…

—흥, 흥, 그래서…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간첩용 위성 《디스카버러 11 호—에이》를 미완성품이기는 하지만 한 50키로 정도로 중량을 불궈 가지고…

—50키로라니? 그게 대체 얼마 만 한 게요?

—네, 말하자면, 그… 물초롱만한…

—물초롱만한 게라! 그래서 펑 하늘로 올라 갈까?

—물론 공중에서 폭발은 하겠지만 그래도 중량상으로는 《쿠레어》를 압도하느니만큼…

—록키드 2세님 앞에서 체면만은 세울 수 있단 말이지, 호호…… 좋소! 당장 발사하시오! 그래서 기뻐 날뛰고 있는 저 륙군성 녀석들의 등에다가 찬물을 끼얹어 주어야겠소! 물초롱이라… 호호… 좋소! 이제 당장 발사하시오.

그런데 바로 이때 부관이 급히 달려 왔다.

—장관 각하! 큰 변 났습니다! 쏘련이 또 다시 우주 비행선 발사했습니다!

—뭐이? 또 우주 비행선을?

— 네, 《쓰뜨렐까》, 《벨까》라는 개를 비롯한 많은 동물, 식물, 파학 실험 기구들을 싣고 궤도에 올라 섰다가 지령에 의해서 다시 지상에 돌아 오게 장치한 4 톤 600키로 짜리의…

—4 톤 600키로 짜리라니? 그게 대체 얼마만 한 게요?

—말하자면 그… 열두 바퀴짜리 대형 뻐스나 소방차만한…

—대형 소방차…? 아, 아이구…

항공 장관 《각하》는 우수수하고 몸을 떨었다. 쏘련의 제 2 우주 비행선은 미국의 어느 성, 한 두 명 뿐이 아니라 모든 전쟁 방화자들의 등에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으면서 돌고 있으니 어찌 미 공군 장관 《각하》가 우수수 몸을 떨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반공 무사》

《닉슨은 말하자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무사〉의 의복을 입었다. 그러나 그가 반공산주의의 비옷을 처음으로 입은 것은 아니지만 그 비옷은 자본주의 세계의 벌거숭이를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그의 종처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엔. 에쓰. 흐루쑈브)

안 창수 그림

편집 위원회
발행소 국 립 미 술 출 판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15920
발 행 1960. 9. 20
(값 40전)

박 승히 그림

8034
Хвальсаль

Пэк 8
ул. Чайковского 19/21
Посольство США
1 7-12 №8С34

미제—예'주인을 상당히 반가워 하는군…

일제—길러낸 보람이 있습죠